

2019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3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9. 6. (금요일),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서연호(위원장), 김영운, 정해임, 정형호, 한경자, 한상일,
허순선, 심승구, 유영대, 정종수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조사결과 검토	비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3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4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5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매사냥’ 2, 3단계 인정조사 통합 실시 여부 검토	비공개
6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핵심 기·예능 추가 설정 검토	공개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19.07.12.)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남봉화에 대하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를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9.07.19.~)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 지정일 : 1964.12.24.
- 전승자 현황

구분	성명(성별, 생년)	인·선정일	비고
보유자(5명)	남봉화(여, ‘35년생)	‘12.04.06.	수궁가
	신영희(여, ‘42년생)	‘12.03.12.	춘향가
	송순섭(남, ‘39년생)	‘02.02.05.	적벽가
	정철호(남, ‘23년생)	‘96.09.10.	고법
	김청만(남, ‘46년생)	‘13.03.12.	
전수교육조교(11명)	김영자(여, ‘51년생)	‘87.07.01.	수궁가
	정영미(여, ‘58년생)	‘95.08.01.	
	정옥향(여, ‘52년생)	‘01.12.27.	
	조동규(남, ‘45년생)	‘88.08.01.	
	김수연(여, ‘48년생)	‘07.03.12.	춘향가
	강정자(여, ‘42년생)	‘82.09.01.	적벽가
	김양숙(여, ‘64년생)	‘94.04.01.	
	김일구(남, ‘40년생)	‘92.07.01.	
	박시양(남, ‘62년생)	‘01.12.27.	고법
	박정철(남, ‘72년생)	‘08.12.30.	
	정희천(남, ‘57년생)	‘85.07.01.	

2) 추진 경과

○ 확인조사 실시('19.05.16.)

- 조사대상자 : 남봉화('35년생, 여 / 수궁가, '12.04.06. 보유자 인정)
- 확인결과 : 남봉화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 남봉화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의결(제10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19.07.12.)

○ 남봉화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공고(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관보 / '19.07.19.)

- 예고 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	기·예능
제5호 판소리	명예보유자 인정	남봉화 (南蓬花)	여	1935년	수궁가

- 예고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남봉화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3) 예고결과 : 의견접수 없음

라. 검토의견

- 그 간의 경과와 예고결과 등을 참고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남봉화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9-13-002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조사결과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9-13-003

2.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9-13-004

3.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9-13-005

4.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9-13-006

5.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매사냥’ 2, 3단계 인정조사 통합 실시 여부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9-13-007

6.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핵심 기·예능 추가 설정 검토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핵심 기·예능 추가 설정 검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9년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를 위해 여원무 이외 자인팔광대 등을 핵심 기·예능으로 추가 설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종목개요

- 지정일: 1971.3.16.(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
- 보유단체: (사)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17.2월 법인설립)
- 전승자 현황
 - 보유자 1명(박인태) / 전수교육조교 1명(김봉석)

라. 종목 전승경과

- '71.3월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한장군놀이' 지정
- '92년 3월 지정명칭 변경 및 복원내용 추가 심의('92.3./제1차 위원회)
 - 추가 복원한 자인팔광대('86년 복원), 큰굿('89년 복원)은 한장군 놀이에 포함하여 전승보전
- '07년 2월 명칭 변경 심의(한장군놀이→경산자인단오제)(07'.2./제1차 위원회)
 - 한장군놀이는 큰굿, 호장굿, 한묘제사, 팔광대 등과 함께 자인단오굿을 구성하고 있는 연희 중 하나이므로 명칭을 변경하여 세시행사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함.
- '16.4월 핵심 기·예능으로 '여원무' 고시

마. 핵심 기·예능 조사 개요

- 조사경과
 - '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19.1.24.)
 - 전수교육조교 충원 관련 보존회 면담('19.2.27.)
 - 보존회 측, 핵심 기·예능 관련 의견서 제출('19.3.4.)
 - 경산자인단오제(여원무, 한 장군대제, 팔광대, 자인단오굿, 호장장군행렬)가 5개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정조사 기준 고시에는 여원무만 핵심 기·예능으로 되어 있어 여원무 외 4개 마당에서 전수가 어려우니 4개 마당도 핵심 기·예능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핵심 기·예능 검토 관련 관계전문가 사전회의('19.3.28.)
 -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주요 전승자 면담조사('19.5.16.)
 -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실연과정 조사('19.6.7.)
- 조사위원: 5명
- 핵심 기·예능 관련 조사자별 검토의견(요약)
 - 자인팔광대의 핵심 기·예능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자 모두 핵심 기·예능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함.
 - 호장장군행렬의 핵심 기·예능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자 모두 포함 시키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함.
 - 한장군대제 및 자인단오굿의 핵심 기·예능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자 의견이 나누어짐.

조사자	검토의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한장군대제</u>: 지금도 자인면 내 인근 마을에는 한장군을 모시는 4개(가척리, 마곡리, 대종리, 원당)의 한당이 존재함. 한장군대제의 제례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1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u>한장군대제는 핵심 기·예능에 포함해야 함.</u> ○ <u>자인팔광대</u>: 여타 탈춤과 다른 독특한 구성을 가진 자인팔광대는 3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경산자인단오제의 중요한 잡희로 자리매김하였음. <u>자인팔광대는 핵심 기·예능에 포함해야 함.</u> ○ <u>자인단오굿</u>: 현재 경상도내륙곳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기·예능에 포함시켜 굿의 형식과 내용등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바뀌야함. <u>자인단오굿은 핵심 기·예능에 포함해야 함.</u>

조사자	검토의견
	<p>○ <u>호장장군행렬</u>: 매 행사마다 행렬의 순서가 바뀌고 있고 단순한 퍼레이드식 행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호장장군 행렬은 핵심 기·예능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함.</p>
B	<p>○ <u>한장군대제</u>: 한장군 사당인 진충묘 이외에 북서리의 한당, 원당리의 한당, 마곡리의 한묘 등에서 벌어지는 각 개별 마을의 한장군 누이를 모시는 제사에 대한 조사와 그 의미를 심화 시키고, 흘기(笏記)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 완성된 후에야 핵심 기·예능으로 포함시킬만함.</p> <p>○ <u>자인팔광대</u>: 강릉단오제와 비교하여 ‘강릉관노탈놀이’ 위치를 살펴보다라도 복원된 지 35년이 지났으며, 현재의 기량으로 보면 자인팔광대는 핵심 기·예능으로 포함시켜도 무방함.</p> <p>○ <u>자인단오굿</u>: 자인단오굿의 굿거리는 주무(主巫) 권명화가 자의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이런 문제로 인해 자인단오굿의 핵심 기·예능 포함이 어려움.</p> <p>○ <u>호장장군행렬</u>: 호장장군행렬이 경산자인단오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렬의 순서가 매 행사마다 바뀌는 등 체계가 불완전하므로 핵심 기·예능으로 지정하기에 부족함.</p>
C	<p>○ <u>한장군대제</u>: 한장군대제는 자인단오제에서 제례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절차를 정확히 숙지한다면 핵심 기·예능에 포함시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평소 보존회에서는 제례 분야의 교육팀을 만들어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p> <p>○ <u>자인팔광대</u>: 기존 지정된 탈춤 보다 탈춤의 형식면에서 크게 뒤쳐진다고 보지 않으며 등장 이물이나 대본의 내용 등에서 영남 탈춤의 특성이 살펴짐. 현재 자인팔광대의 전승자의 능력, 30년 이상 지역에서 전승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핵심 기·예능에 포함하여도 무방함.</p> <p>○ <u>자인단오굿</u>: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경상도 굿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무당의 굿 형식이 자인단오굿의 ‘전형(典型)’이라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현재의 상황이라면 핵심 기·예능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움.</p> <p>○ <u>호장장군행렬</u>: 현재 호장장군행렬은 원래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형되어 진행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행렬의 순서, 참가자, 도구, 복식 등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함.</p>
D	<p>○ <u>한장군대제</u>: 한장군대제는 경산자인단오제를 이루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맞으나 특별한 예능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핵심 기·예능에 포함</p>

조사자	검토의견
	<p><u>시킬 필요가 없음.</u></p> <p>○ <u>자인팔광대</u>: 전승자들이 비교적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자인팔광대는 <u>경산자인단오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므로 핵심 기·예능으로 포함해야 함.</u></p> <p>○ <u>자인단오굿</u>: 자인단오굿은 그 연행의 수준이나 전승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현재 문제가 많음. <u>자인단오굿의 성격과 연행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u></p> <p>○ <u>호장장군행렬</u>: 호장장군행렬은 한 장군대제를 지내러 가고 오는 행렬로 한장군대제를 이루는 부속적인 성격이 있음. 가장행렬이 가지는 기획력과 활용을 높인다면 경산자인단오제의 주목할만한 볼거리가 될 것임. 하지만 <u>핵심 기·예능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음.</u></p>
E	<p>○ <u>한장군대제</u>: 한장군대제가 핵심 기·예능에 포함되려면 대제 담당층의 확실한 교육 체계 확립, 대제 진행의 고유성 확보, 대제 진행 전 과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u>현재 상태로는 핵심 기·예능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임.</u></p> <p>○ <u>자인팔광대</u>: 현재 전승단체 내 전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명한 대본을 정립한 바 있음. <u>자인팔광대는 핵심 기·예능에 포함되어도 무방함.</u></p> <p>○ <u>자인단오굿</u>: 자인단오굿은 현재 공연물이라는 점, 경산 지역 고유의 무속이 반영되지 있지 않은 점, 특히 상차림이나 무구, 무복의 사용이 영남 지역 및 경산 지역과 무속과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u>핵심 기·예능에 포함될 수 없음.</u></p> <p>○ <u>호장장군행렬</u>: 호장장군행렬은 현재 단순한 행렬의 진행으로 과거의 호장굿과는 사뭇 다름. 그리고 자인단오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낮음. <u>핵심 기·예능에 포함될 수 없음.</u></p>

바. 검토의견

- 추가 설정되는 핵심 기·예능을 바탕으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함.
- 경산자인단오제 핵심 기·예능 추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사. 의결 사항

- 부결함
 - 현재로서는 경산자인단오제 핵심 기·예능 추가 설정은 하지 않음.